

◎ Cast-type Edition of Paeg'un Whasang Chorok Pulcho Chikchi Simche YojoI, Published in Koryo Dynasty

# 高麗鑄字本 白雲和尚抄錄佛祖 直指心體要節

千 惠 鳳  
(成均館大學校 圖書館學科 教授)

## 序 言

高麗朝에서 所産된 우리 祖上들의 創意的 叡智와 일  
이 담겨진 文化遺産中, 그 하나로서 鑄字와 그에 의한  
印書를 들고 있음은 當代에 所撰된 數種의 文獻에 根  
據한 것이며, 實物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하기에  
그 間 사람에 따라서는 鑄字 및 그 印書에 관하여 혹  
은 可能性을 是認하고, 혹은 半信半疑의 意見을 披瀝  
하였던 것이다.

그러던 中 지난 해 여름 프랑스國立圖書館 秘藏의  
本書 卷下 零本이 覽代에 刊行한 世界 最古의 現傳 鑄  
字本으로 異邦의 首都 파리에서 公開되었고, 이어 이번  
에 政府가 이를 原本 크기대로 影印하여 國內外에 널리  
퍼냄으로써 우리가 最初로 鑄字를 創案 發展시킨 슬기  
로운 文化民族임을 萬邦에 誇示하게 되었으니, 더없는  
우리 겨레의 자랑이며 矜持임은 두말 할 나위 없다.

## 一. 編 者

本書의 編者는 麗末의 曹溪大禪師 景閑이며, 그의  
號는 白雲이요 古阜郡 出身이다. 牧隱 李穡 撰의 白雲  
和尚語錄序에 “年七十七 示寂于鶯岳”이라 한 것과 國立  
中央圖書館藏 同書 木板本 所收의 編者 親書의 後記인  
歲在壬子年(高麗恭愍王 21年, 西紀1372年) 9月 成佛山  
居老比丘景閑白雲手書時 年七十有五矣”라 한 記錄을  
아울러 상고하면 그는 高麗忠烈王 24年(西紀 1298年)에  
誕生하여 高麗恭愍王 23年(西紀 1374年)에 歸寂하였을  
을 알 수 있다. 그는 髫歲에 視髮受具하고 力學求道하  
면서 혹은 王命으로 高麗忠穆王 2年(西紀 1346年)에 旱  
霧의 行事를 主宰한 일도 있었으나, 그의 이름이 禪界  
에 널리 알려지게 된것은 高麗忠定王 3年(西紀1351年)  
5月17日에 中國 湖州 霞霧山 天湖庵의 石屋清瑛和尚을  
찾아 法을 묻는 한편 西天의 指空和尚에게도 質疑하여  
明心悟道하고 歸朝한 高麗恭愍王 2年(西紀 1353年) 이  
後의 일이다. 그는 歸還한 翌年 6月에 海州 安國寺에  
서 霞霧山 天湖庵으로부터 來航한 禪人 法眼이 傳하는

石屋老師의 涅槃 辭世頌을 받았으며, 그로 因하여 老  
師가 平生 所蘊한 禪風이 그의 法偈에 傳付되었으니  
그의 禪德이 한결 精彩로워지는 契機가 되었다. 그 後  
그는 同王 14年 乙巳(西紀 1365年) 6月 21日에 海州  
神光寺에 入院하여 雲集하는 禪徒의 薰陶에 從事하던  
서 그의 宗風을 드날렸으며 그와같이 禪林의 淨業 修  
習에 힘써 오던 中 77歲를 一期로 驪州 川寧縣 鶯巖寺  
에서 入寂하였다.

禪翁의 侍者 釋璨이 輯錄 上梓한 그의 語錄 2卷은  
일찌기 當代의 禪界에서 破暗의 孤燈이요 濕熱의 清風  
으로譬喩하였던 바, 그가 平生 닦아 온 悟道의 精  
髓를 모은 力作이다. 이러한 業果로 因해서 그를 當代  
의 臨濟正傳者인 圓證 太古國師(西紀 1301~1382年)  
및 曹溪禪教의 重興祖인 懶翁 惠勤和尚(西紀(1320~13  
76年)과 더불어 우리나라 禪教史上의 三大禪傑로 손꼽  
아 欣慕하고, 後世의 具眼者들이 그의 禪風을 悟道의  
指南으로 여겨 尊遵하고 있는 것이다.

## 2. 內容 및 範圍

本書는 白雲和尚이 傳燈의 諸書를 涉獵 手抄하여 75  
歲되던 해, 그러니까 世終을 마치고 歸寂했던 바로  
2年前인 高麗恭愍王 21年 壬子(西紀1372) 9月에 成編  
한것이다.

그 內容과 範圍는, 卷上에 過去 莊嚴劫의 毘婆尸佛  
尸棄佛 毗舍浮佛과 現 賢劫의 拘留孫佛 拘那含牟尼佛  
迦葉佛 釋迦牟尼佛 도합 7佛을 爲始하여, 이들 7佛로  
부터 佛法을 承繼한 印度 天竺의 第1祖 摩訶迦葉 以下  
第28祖 菩提達磨까지의 28尊과 中土의 慧可 僧璨 道信  
弘忍 慧能의 5祖 그리고 그 法嗣의 後世 諸高僧中 安  
國大師에 이르기까지, 卷下에는 鵝湖大義和尚 以下 大  
法眼禪師에 이르기까지, 卽 歷代 諸佛祖師가 道를 開  
치고 傳하는 偈 頌 讚 銘 書 詩 法語 說法等中 禪의  
要諦를 開闡는 데 必要한 精髓를 抄撮하여 수록한 것  
이며, 그 中 卷上 1冊은 일찌기 溼沒되고 卷下 1冊만  
이 傳存된 것이다. 本 卷下 零本 1冊도 總 39張中 首

葉 1張이 缺落되어 鵝湖大義和尚坐禪銘을 거의 잃고 大珠禪師부터 그 文이 完全하게 나타나고 있다.

本書의 主題인 “直指心體”는 “直指人心 見性成佛”이란 悟道의 名句에서 딴 것이며 그 뜻은 修禪하여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볼 때 그 心性이 곧 부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菩薩戒經에서 “我本性 元自清淨 善知識 於念念中 自見本性清淨 自修自行 自成佛道”라 했고, 法寶壇經에서도 “於一切時 念念自淨其心 自修自行 見自己法身 見自心佛”이라 했던, 말하자면 사람의 本性은 그 自體가 본시 清淨하니 善知識을 作用시켜 心中에서 그 心性이 自淨함을 깨닫고 自修自行하면 自己 自身이 곧 法身이며 自己의 마음이 곧 佛心이 된다고 한 偈言에 根據한 것이다. 이를 알기 쉽게 表現하면 參禪하여 道를 깨달을 때 마음 밖에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自己의 마음이 바로 부처가 된다는 要旨이다.

抄錄의 對象이 된 底本은 景德傳燈錄을 비롯한 五燈會元 등의 史傳部 諸書이기 때문에 內容上으로는 別로 새로운 資料가 되지 못하고 또한 韓國諸師의 그것에 있어서도 傳燈錄 所收의 근 30師中 겨우 新羅大嶺禪師의 것만을 簡略하게 摘記한 데 지나지 않음을 指摘해 둔다. 이렇듯 그 內容은 오늘날 別로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禪流의 法弘에 彼劣我優를 다투며 힘썼던 麗末에 禪徒들에게 禪道 乃至 禪觀에의 眼目を 띄워 주고 禪風을 드높이고자 하는 一念에서 老眼을 무릅쓰고 엮어 낸 禪翁의 精誠어린 執念과 賢勞가 대견하게 評價되는 勞作이라 하겠다.

### 3. 傳來의 經緯 및 書誌學的 考證

이 鑄字本은 舊韓末 駐韓佛蘭西代理公使로 서울에서 勤務한 바 있던 콜랭 드 플랑시(Collin de Plancy)가 蒐集한 藏書속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서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이 西紀 1901년에 續補한 韓國書誌(Bibliographie Coréenne)의 附錄(Supplément)에 진작 紹介된 바 있었으나 그 뒤 行方이 杳然하여 實物을 接할 길이 없었다.

近者에 이르러 비로소 이 책이 原所有者 드 플랑시의 賣渡에 依해 圖書 蒐集家 앙리 베베르(H. Vever)의 手中으로 넘어 갔고, 1950년에 그가 死亡하자 프랑스 國立圖書館으로 寄贈되어 秘藏中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西紀 1972年 5~10月 “世界圖書의 해”를 紀念하기 위한 “책의 歷史” 展示會에 처음 出品됨으로써, 온 世界의 耳目을 集中케 하고 특히 國內의 學界를 자못 흥분케 한 바 있었다.

本書에 관하여는 그 間 同圖書館에 奉藏中에 있는

朴炳善 女史가 周到綿密한 方法을 적용시켜 研究해 왔고, 또한 去年末에 原本 크기의 影印版을 直接 가지고 歸國하여 國內의 書誌學界에 公開해 준 수고로 여러 書誌學者의 鑑定을 거쳐 意見을 綜合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 當時 絕對 多大數의 書誌學者들은 본바탕이 金屬活字이며 本活字를 混用하여 印行한 高麗鑄字本이라는 結論을 내렸다.

이 鑄字本이 지닌 書誌的 諸特徵中 主要한 것을 들어 分析的으로 要說하면 大略 다음과 같다.

(1) 匡郭의 四周가 固着된 單邊이고 그 匡郭의 上下邊에 界線이 固着되어 있다. 또한 每半葉의 行字數는 11行 18~20字로서 每行의 字數에 3字의 出入이 생겨 끝자의 橫伍가 맞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뒷 字의 最下端劃과 아랫 字의 最上端劃이 서로 물리는 結果를 招來케 하고 있다.

이것은 活字의 製造 및 組版 方法이 未熟했던 初期에서 볼 수 있는 特徵이다. 本書가 活字版이라 함은 全葉에 걸쳐 調査해 본 바, 匡郭과 界線이 固着된 2種의 組版 틀을 마련하여 서로 갈아 排印한 痕跡이 發見되는 點에서도 立證된다. 그 例로서 組版 틀의 版心題中 하나는 “直指下”, 다른 하나는 “直指下”와 같이 字體가 다른데, 이것이 交替로 反覆되면서 卷末까지 나타나고 있음을 들 수 있으며, 마지막 張에서 “指”가 脫字된 것도 바로 組版을 뒷받침해 주는 例에 該當한다.

(2) 글자 中에는 字樣이 不均整하고 字劃의 太細가 不整하며 刀刻의 痕跡이 보여 木活字로 여겨지는 것이 混用되어 있고 특히 卷末의 誌公和尚十四科頌과 그 언저리의 印文에 있어서 그러한 느낌을 더욱 길게 하고 있으나, 그러나 본바탕이 되는 活字는 鑄造術이 未熟했던 初期 鑄字의 特徵을 如實히 나타내 주고 있다. 더우기 鑄字의 特徵을 지니고 있는 글자에 관하여는 빠리에



(白雲和尚抄錄佛祖 直指心體要節)

서 原本에 의거 擴大하여 精密檢査를 實施해 본 結果, 墨痕에 木理가 보이지 않고 金屬에 먹칠을 칠하여 적은 痕跡이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立證해 주고 있다.

活字中 同一한 字樣의 글자는 全葉에 걸쳐서 頻出되나, 한 組版에 의해 적어 낸 紙葉上에 있어서 鑄字의 特徵을 지니고 있는 活字는 같게 보이거나 또는 恰似한 것도 多少 나타나고 있지만 거의 字樣에 差異를 보여 주고 있으며, 또한 木活字가 混用되고 있어 같은 모양의 글자를 찾아 보기 어렵다.

이와같이 鑄印에 있어서 字樣에 差異를 보여 주는 것은 뒤에서 詳述하겠지만 鑄字術이 發達되지 못한 初期에 利用되었던 鑄字의 方法이 朝鮮朝의 官鑄의 경우와는 다르고, 또한 官衙 아닌 地方寺刹에 의해 鑄造되어 그 技術이 未熟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3) 各行列上的 排字가 고르지 않고 그 中에는 글자가 아예 옆으로 비스듬하게 植字된 것도 있다. 또한 글자의 墨色の 濃薄度가 甚한 差異를 보여 주고 있으며 어떤 글자는 全體가 희미하고 어떤 글자는 字劃의 一部가 적히지 않은 것도 있다.

이것은 活字本의 特徵을 如實히 나타내 주는 要素들이거니와, 그 中 墨色の 濃薄의 差異는 組版된 活字의 面이 평평하지 못하고 起伏이 있으며, 字劃의 一部가 적히지 않은 것은 活字 그 自體가 바르게 植字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字體는 高麗 後期에 流行되었던 것 中의 하나로서, 李朝 때에 刊行된 各種의 活字本中에서는 그러한 字體를 아직껏 보지 못하였다.

또 版心에는 黑口와 魚尾가 전혀 없고 다만 “直指”(但, 卷末의 39葉에는 “指”가 脫字되어 “直”만 表示되어 있음), “下”의 卷次 및 張次의 表示만 있다. 朝鮮朝에서 刊行된 活字本에는 黑口와 魚尾, 또는 魚尾의 여러 種類中 어느 하나가 대체로 表示되어 있다.

이와같이 字體와 版式에 있어서도 朝鮮朝 刊行의 活字本에서는 보기 드문 獨特한 特徵을 지니고 있다.

(5) 卷末에 “宣光七年丁巳(高麗禑王 3年, 西紀1377年) 7月 日 淸州牧外興德寺鑄字印施”에 이어 그 裏面에 “緣化 門人 釋璨 達湛, 施主 比丘尼 妙德”의 表示가 있다.

刊記는 뒤에 重刊하면서도 原本의 記錄대로 移植 또는 轉載하는 경우가 있지만 寺刹本에 있어서 助緣 門人 施主等만은 例外없이 올바르게 表示하는 법이다.

위의 경우 門人中 釋璨은 바로 白雲和尚의 侍者로서 그의 語錄 上下卷을 輯錄한 首弟子이며, 또한 國立中央圖書館藏 木板本에 의하면 翌年인 高麗禑王 4年(西紀 1378年)에 本書를 驪州 鵞岳寺에서 上梓할 때도 主勳役割을 하였다. 達湛도 또한 法麟 釋璨과 함께 本書

를 鑄印한 1年後에 前掲의 鵞岳寺에서 同語錄의 鋟梓에 助緣한 門人이다. 그리고 施主 比丘尼 妙德도 위의 白雲和尚語錄의 開板에 있어서는 물론 그 해에 同寺에서 本書의 鑄板時에 그 일을 크게 도와 功訖을 보게한 人物이다.

이렇듯 助緣 門人 및 施主가 바로 當代의 人物들이니 本書는 위의 刊記대로 高麗禑王 3年(西紀 1377年) 7월에 淸州牧外의 興德寺에서 鑄印된 것이 틀림 없다.

위의 같이 書誌의 主要 特徵을 綜合的으로 考察한 結果, 本書는 金屬活字를 본바탕으로 하고 그 不足을 木活字로 充用하여 高麗禑王 3年에 刊行한 鑄字本임을 鑑定하였거니와 그러나 그 中 (1)과 (2) 그리고 興德寺의 鑄印問題에 對하여는 異見을 提起하는 분이 없지 않으니 그 具體的인 考證의 必要性을 느끼게 한다.

첫째. (1)의 特徵中 四周가 固着되고 界線이 그 匡郭의 上下邊에 固着된 例를 들어 木板本이라고 主張하는 분이 있다. 勿論 그 例만을 單獨的으로 考察한다면 그 것이 主로 木板本에서 볼 수 있는 特徵임은 아무도 否認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本書에 있어서는 위에서 言及한 組版의 痕跡 以外에 (3)의 特徵이 木板本과 活字本을 가름하는데 있어 重要な 基本要件이 되니 이를 木板本으로 推定함은 誤判임을 指摘하거니와, 이는 특히 朝鮮朝 初期의 組版術을 理解하지 못한데서 惹起된 과오인 것이다.

朝鮮朝에 있어서 처음으로 나온 太宗 3年(西紀 1403年) 鑄造의 癸未銅活字本에 있어서도 (1)의 特徵中 每 行의 字數 出入을 除外하면 一樣함을 鑑別할 수 있다. 그 癸未字의 組版에 관하여는 世宗實錄 卷11, 3年 3月 丙戌條 所收의 庚子字 鑄造時의 記錄에

“前此印册 列字於銅板 鎔黃蠟凝澀 然後印之 故費蠟甚多 而一日所印 不過數紙 至是 上親自指畫 命工曹參判李蒞 前小尹南汲 改鑄銅板與字樣 相准不暇 鎔蠟而字不移 却甚楷正 一日可印數十百紙”

라 있듯이, 銅板위에 活字를 늘여 놓고 黃蠟을 녹여 부어 굳게 한 다음 印刷하였기 때문에 蠟의 消費量은 많고 印出量은 不過 數紙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傳存의 實物에 의해 알 수 있듯이, 四周를 固着시킨 틀의 上下邊에 界線까지 固着시킨 銅板을 만들어 各行間에 活字를 排植하고 黃蠟을 녹여 부어 굳게 하는 方法을 擇한 것이나, 그 蠟의 堅凝力이 弱해서 印刷途中에 動搖가 생기므로 固着된 行間에 活字가 딱 들어 맞도록 密着排字하였던 것이다. 이 때 活字의 두께가 一定치 않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活字의 몸통까지 깎아 딱 들어 맞도록 하였기 때문에 結果的으로 橫伍가 맞지 않고 뒷字와 앞字가 물리게 되는 경우까지 생겼던 것이다. 그리하여 두번째로 改鑄된 庚子

銅活字에 있어서는 그 銅板을 改良하고 活字의 크기와 두께도 一定하게 만들어 排字時에 相準不暇토록 하는 段階로 發展시켰던 것이다.

요컨대 朝鮮朝 最初의 癸未字 組版術이 그러하거늘, 하물며 高麗 때의 組版術은 그 보다도 더욱 技術이 未熟하였으니 固着된 行間에 크기와 두께가 不定한 活字를 꼭 들어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必然的으로 字數에 까지 3字의 出入이 생겼던 것이다.

이렇듯 本問題는 韓國 鑄字術의 發達史의 觀點에서 究明하여야만 그 性格이 올바르게 把握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2)의 特徵中 한 組版에 의해 찍어 낸 紙葉에 있어서 鑄印의 경우 같은 字樣의 글자가 別로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들어 問題로 提起하는 분도 있다.

이 問題의 解決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鑄字方法에 대한 考察이 必要하다고 느껴진다. 鑄字術이 高度로 發達된 朝鮮朝에 있어서의 活字鑄造法은 成僎 撰의 慵齋叢話 卷之7 所收의 鑄字之法에

“大抵鑄字之法 先用黃楊木刻諸字 以海浦軟泥 平鋪印板 印着木刻字於泥中 則所印處 凹而成字 於是合兩印板 鎔銅從一穴瀉下 液分入凹處 ——成字 遂刻剔重複而整之”

라 잇듯이, 나무에 刻字해서 印版에 평평하게 깎 바다의 軟泥에 印着하여 字型을 만든 다음, 그 위에 印板을 덮고 그 구멍으로 金屬의 鎔液을 부어 活字를 鑄成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는 나무에 刻字한 字母 하나를 마련하면 必要한 數만큼 軟泥에 印着해서 字型을 만들어 活字를 鑄成하기 때문에 同一한 字樣의 것을 量産할 수 있는 것이다. 무릇 朝鮮朝 刊行의 鑄字本에 있어서, 字母를 다시 만들어 字樣이 같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으레 同一한 字樣의 글자가 한 版面에 頻出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鑄字之法에 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本書의 鑄印에 있어서는 어찌서 같은 字樣의 글자가 한 版面에 別로 나타나지 않느냐가 問題인데, 이것도 우선 그 鑄字方法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寺刹에 있어서의 鑄字方法은 比較的 近代에 이르기까지 初期의인 方法을 襲用해 왔다. 그것은 活字 模樣으로 만든 精製의 黃蠟에 刻字하고 坩堝(도가니)를 製造하는 烏土에 粘土를 섞은 材料로 덮여 써서 字型을 만들어 구운 다음, 容器에 모아 그 個個의 字型에 金屬의 鎔液을 부어서 活字를 鑄成하였던 것이다. 이 경우 黃蠟으로 만든 字母는 字型을 구울 때 녹기 때문에 한번 밖에 使用되지 못하며, 字型도 字劃이 쉬운 것은 數回의 使用이 可能하나 字劃이 複雜한 것은 흔히 字劃部分에 缺失이 있게 되므로 거의 한번 밖에 使用되지 못하였다. 寺刹에서 이러한 方法은 鑄字 以外에도

裝飾과 銘文이 있는 各種의 小型佛具의 鑄造에까지 利用되었으며, 現在 生存하고 있는 僧侶中에도 體驗했던 분이 있어 이를 立證해 주고 있다. 黃天午 文化財委員會 專門委員도 바로 그 中の 한 분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鑄字方法으로 만드려진 活字에 의해 찍혀진 책에 있어서는 字劃이 쉬운 것을 例外로 한다면 거의 같은 字樣의 글자가 나타나지 않는 셈이다.

本書 鑄印의 活字도 想必 이러한 方法으로 만들어졌기에 한 版面에 同一한 字樣의 글자가 別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鑄字로 찍은 글자를 보건대, 優雅美麗하게 精巧로운 것이 있는가 하면, 木活字로 찍은 것이 아니면서도 字樣, 크기 및 字劃등이 均整되지 않은 것도 있다. 그 中 精巧로운 글자는 나무보다 刀刻이 容易한 黃蠟에 刻字하여 字母로 하였기 때문이며, 不均整한 글자는 字本 쓰기, 刀刻, 鑄造過程, 鑄成後의 손질등에 있어서 未熟 또는 失手한데 基因함을 짐작케 한다.

한편 本書가 木活字를 混用하고 있음을 보면 이 鑄字는 既鑄의 것이 아니면 혹은 黃蠟에 刻字하는 것이 나무보다는 훨씬 簡易하나 反面 그 鑄成過程이 複雜하기 때문에 木刻字로 充用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지는 것이다. 이러한 這間의 事情이 어떠한 間에, 요컨대 本書는 朝鮮朝의 鑄字所에서 行했던 바와 같은 鑄字之法이 아니라 初期의인 方法에 의해 鑄成된 活字와, 그 不足을 木活字로 充用하여 印出한 것에 該當한다. 이것이 바로 한 組版에 의한 紙葉에 同一한 字樣의 글자가 別로 나타나지 않는 까닭이다.

셋째. 或者에 따라서는 地方의 一個寺刹이 과연 金屬活字를 鑄造할 수 있는 能力을 갖었을까 하고 疑問을 表하기도 한다.

本書의 鑄印處인 忠淸道 淸州牧外郭 所在의 興德寺에 관하여는 緣起와 沿革이 文獻에 未傳되고 있어 當時의 寺刹規模가 어떠한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這間의 規模가 어떠한 間에 위의 疑問은 崇儒排佛策을 國是로 삼았던 朝鮮朝에 있어서의 寺刹觀念을 前提로 한데서 생긴 것이요, 高麗朝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高麗朝는 佛敎를 國敎로 삼았던 寺僧優位時代로서 寺刹이 梵鍾이나 各種의 大小型 佛像의 鑄造技術을 일찌기 體驗하여 實施해 왔고 또 高麗朝에 있어서는 새로운 鼓鑄法으로 鑄錢에 文字와 金屬佛具에 銘文을 매우 精巧롭게 鑄成하였던 것이니, 想必 이러한 技法이 活字 鑄造의 前提의 與件이 되었고 이것이 寺刹의 經濟的 및 崇佛崇僧의 特待의 權限과 結付되어 金屬活字 鑄造의 實踐을 일찌기 可能케 하였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鑄字本이 朝鮮朝의 그것에 比해 사뭇 粗拙한 것도 上述한 바와 같이 鑄字의 方法이 아직 發達하지 못했던 初期에 鑄成된 活字로 印出되는데 主因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듯 地方의 一個佛宇에 의해 鑄造되어서 그 技術이 未熟했기 때문이라 보는 것도 當然한 推理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 4. 本 鑄字本 發見의 意義

이 鑄字本은 朝鮮朝에서 最初로 太宗 3年(西紀1403年)에 鑄造한 癸未銅活字의 刊本보다 不過 26年前에 나온 것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實로 重要な 事實은 이 鑄字本이 發見됨으로써 종래 궁급하게 여겨왔고 혹은 半信半疑해 왔던 高麗朝 所撰의 諸文獻에 적힌 鑄字 및 그 印법에 관한 記錄이 모두 既定事實로 認定된다는 點이다.

麗代의 鑄字에 관한 記錄中 現傳하는 最古의 것은 東國李相國集 後集 卷11 所收의 新序[印]詳定禮文跋尾에

“果於遷都之際 禮官違違未得賈來 則幾若已廢 而有家藏一本得存焉 予然後 益諸先志 且幸其不失 遂用鑄字 印成二十八本 分付諸司藏之”

라 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跋은 高麗高宗 19年(西紀1232年)에 江華島로 遷都한 以後 當代의 學者 李奎報가 晉陽公 崔怡를 대신하여 지은 것인 데, 崔怡는 崔瑀의 改名이며 江華의 政權을 專橫하던 武官으로서 晉陽侯에 封爵된 것이 高麗高宗 21年(西紀1234年)이고, 이 跋尾를 쓴 李奎報는 同王28年(西紀1241年)에 江華에서 逝去하였으니 그 사이에 本 詳定禮文 50卷 28部가 鑄字로 印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南明泉和尙頌證道歌 卷末 所收의 中書令 晉陽公 崔怡謹誌에

“天南明證道歌者 實禪門之樞要也 故後堂叅禪之流莫不由斯 而入外堂觀與矣 然則其可閉塞而不傳通乎 於是募工重彫鑄字本 以壽其傳焉 時己亥九月上旬”

이라 있음도 들 수 있다. 위에서言及한 바와 같이 그는 高麗高宗 21年(西紀1234年)에 晉陽公에 封侯되었으니 上記의 刊行年은 同王 26年(西紀1239年)에 該當한다. 따라서 이 重刻本 證道歌의 底本이 되었던 鑄字本이 그 以前에 刊行된 것임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그 刊行時期는 前揭한 詳定禮文과 같이 江華政府에서 이루어졌다면 遷都後 鑄印施設이 갖추어지자 比較的 初期에 刊行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鑄印後 再需要를 充當하기 위해 覆刊한 것이니만큼 그 間 多少 歲月이 흘렀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그 刊行은 遷都 以前에 이루어졌을 可能性이 더 길다고 여겨진다. 江華遷都 以後는 事實上 國難打開 以外的

他事에 創意的인 머리를 쓸 겨를이 없었을 것이고 보면 하물며 鑄字의 發明과 같은 偉業의 成就란 期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不拘하고 이토록 軍部가 손쉽게 活字를 鑄成해서 印書하였다는 것은 淸녕 그 以前에 鑄印의 經驗이 있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며, 또한 上述한 바 있듯이 진작부터 梵鍾, 大小型佛像, 鑄錢의 文字 및 各種 佛具의 銘文등에 대한 鑄成法을 이미 體驗하고 있어 鑄字 發明의 前提的인 條件이 十分 갖추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번째로 나타나는 記錄이 바로 高麗禰王 3年(西紀1377年)에 이루어진 本 直指心體要節의 鑄字印施이며, 그 다음으로는 麗末鮮初人인 鄭道傳 撰의 三峯集 卷1 所收의 置書籍舖詩並序에

“吾東方 書籍罕少 學者皆以讀書 不廣爲恨 予亦病此 久矣 切欲置書籍舖鑄字 凡經史·子書·諸家詩文 以至醫方·兵律 無不印出 俾有志於學者 皆得讀書 以免失時之歎”

云云한 內容이다. 本書의 刊行은 同書 凡例에 “是集始刊於洪武丁丑(太祖 6年, 西紀1397年)”이라 하였으나, 卷1의 本序 前後에 수록된 詩文들이 거의 麗末의 作이고 보면 書籍舖에 鑄字를 두어 무릇 經史 子書 諸家詩文에서 醫方 兵律에 이르기까지 印出云云한 그의 要請도 麗末에 있었던 事實임에 틀림 없다.

끝으로 高麗史 卷77 志卷第31 百官2 書籍店條下에 “恭讓王 4年 置書籍院 掌鑄字 印書籍 有令丞”

이라 있고, 高麗史節要 卷35 恭讓王壬申 4年春正月條에도 그와같은 記錄이 있음을 援用할 수 있다. 이것은 高麗末年인 恭愍王 4年(西紀1392年)에 鑄字와 그 印書를 專掌하는 書籍院이 設置되었음을 말해 준다.

本 直指心體要節이 麗代의 鑄字本으로 밝혀짐으로써 上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鑄字 및 그 印刷術의 發明이 1230年代 以前에 이루어졌고 그 鑄字에 의한 印書가 그 後 麗末에 이르기까지 繼續되었음이 既定事實로 立證되니 實로 대견한 成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一聯의 鑄印事業은 비록 活氣는 띄지 못했다 하더라도 朝鮮朝에 접어들어서 國初부터 癸未銅活字의 始鑄에 이어 世界의 어느 나라에서도 그 類例를 찾아 볼 수 없는 善한 活字의 精鑄와 그 印書를 促進시켜 民族文化를 크게 發展케 했던 터전을 構築해 주었으니 文化史的인 見地에서 그 意義가 至大하게 評價되는 것이다.

#### 5. 韓國 鑄字印刷術의 獨創性 및 優位性

다음으로는 世界印刷文化史的인 見地에서 彼我的 印刷術을 比較考察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鑄字 및 그

印刷術의 獨創性 및 優位性을 浮刻해 보려 한다.

中國에 있어서 活字 發明은 北宋의 沈括(西紀 1030~1094年) 撰인 夢溪筆談 卷18 板印書籍條에 의하면 畢昇이 慶曆年間(西紀 1401~1048年)에 만든 膠泥刻字라 하며, 아울러 그 活版의 組版方法도 紹介하고 있다. 이것은 膠泥를 使用한 材料에 刻字하여 구어서 굳게한 것이며, 組版할 때는 鐵板위에 松脂蠟과 紙灰類를 깔고 活字를 排列한 다음 불을 가해 녹이는 한편 다른 平鐵板으로 위에서 눌러 평평하게 하여 식힌 후에 印刷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膠泥材料의 活字로서는 이러한 組版方法을 數회에 걸쳐 되풀이 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또한 그 保存도 至難하였을 것임에 其實用化되지 못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더우기 이 活字는 그 後에 계속 使用되었다는 記錄도 없거니와 그 印本도 傳해지는 것이 없다고 듣는다. 活用되지 못하였던 하나의 試圖作인듯 하다.

그 뒤 14世紀 初葉에 元의 王禎이 編撰한 農書에는 “近世”에 錫活字와 “今又” 木活字를 使用하였다는 記錄이 傳해진다. 여기서 지금이라는 것은 農書가 編撰된 當時를 가리키는 勿論이거니와, 近世라는 것은 蒙古가 元으로 國號를 고친 西紀 1271年 以後即 13世紀 後半期로 볼 수 있으니, 高麗에서는 그 보다 훨씬 앞서 金屬活字를 發明하여 進작 1230年代에는 詳定禮文, 그리고 그 무렵 또는 그 以前에 벌써 南明泉和尚頌證道歌 등을 刊行하였으므로 別로 대단한 것이 되지 못한은 勿論이다. 錫活字는 그 時期로 미루어 보아 高麗와 元이 國交를 맺은 뒤이니 그 鑄字方法은 오히려 高麗에서 影響을 받았을 可能性이 짙다. 이것은 活字를 鐵條로 꿰서 줄을 만들고 界線이 있는 蓋內에 嵌入하여 印刷하는 方法을 擇하였는데 그 技術이 不足하여 活字가 망가지기 쉽고 또한 字面에 먹칠이 어려워 別로 使用되지 못하였다 하니 이것마저도 實用化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中國에 있어서 金屬活字에 의한 印刷를 實際로 成功시켜 책을 刊行하였다는 記錄과 함께 그 實物이 現在 傳해지고 있는 것은 明代의 弘治 正德年間(西紀 1488~1521年)이다. 그 例로서 錫山의 華燧 華燾의 會通館과 華堅 華鏡의 蘭雪堂에서 印行한 刊本을 들 수 있으며, 그 中 筆者는 “乙亥年(西紀 1515年)春三月 錫山

蘭雪堂華堅允剛活字銅板印行”의 刊記가 있는 蔡中郎文集을 實査하였다. 鑄字術이 자못 粗拙하여 마치 木活字와 같이 보이고 字樣이 不整하며 우리나라의 것과는 아예 比較할 바가 못된다.

말하자면 中國에 있어서 元代 以前의 活字는 결코 金屬活字로 發展시키지 못한 채 短命의 試圖作으로 그쳤고, 金屬活字의 實用化는 明의 弘治 正德年間에 우리나라의 影響을 받고 이루어졌다고 믿어 疑心치 않는다.

한편 西歐에 있어서는 獨逸의 구텐베르크(Johann Gutenberg)가 西紀 1440年代의 末期에 처음으로 金屬活字를 發明하여 印刷하였다고 傳해지는 “世界審判의 斷片”(그 斷簡의 一葉이 現存되어 있다고 傳聞함), “天文曆”과 西紀1455年을 前後한 무렵에 “四十二行聖書” 등이 刊行되었다고 傳해진다. 이것은 鮮朝朝에 들어와 太宗3年(西紀 1403年)에 最初로 鑄造한 癸未銅活字 所印의 諸刊本보다도 4·50年이나 뒤의 일이니 高麗 때 刊行된 鑄字本과는 아예 比較할 나위도 못된다.

무릇 鑄字 및 그에 의한 印書라면 그 濫觴의 時期로 보거나 그 優雅美麗한 精巧度와 多樣한 種類로 보거나 우리나라가 斷然코 世界에 으뜸임을 세삼 깨닫게 한다.

### 結 語

以上에서 살펴 본 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鑄字 및 그 印書의 方法은 일찌기 西紀 1230年代 以前에 創案되어 麗代에 維持시키고 朝鮮朝에 繼承시켜 마침내 世界印刷文化史上 類例 없는 눈부신 發展을 보게함과 아울러, 우리의 傳統文化를 特色 있게 創造·發展·土着化시켜 오늘에 이르게 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方法을 中·日兩國에까지 影響 乃至 傳播시켜 東洋文化의 發展에도 크게 寄與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實로 鑄字印刷은 우리 겨레의 슬기에 의해 史上 最初로 創始된 것이며, 現傳하는 世界 最古의 鑄字本은 바로 西紀 1377年에 刊行한 本 白雲和尚抄錄直指心體要節이 되는 것이다. 記錄과 實物이 如實히 立證해 주건대, 아직껏 從來의 그릇된 見解가 文獻에 訛傳되어 있다면 이를 此際에 응당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